

# 광주, 세계적 문화도시 반열에…콘텐츠 확충 급선무

## 의미와 과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4일 개관한다.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를 21세기 아시아 문화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의 성지'인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선 문화전당은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

◇기대 모으는 광주의 문화발전소=문화인프라 불모지였던 광주는 '블루칩'으로 통하는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Hub)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용역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자사업과 관람객의 소비 지출로 인한 총 생산 파급 효과는 2조 76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 유발 효과만도 직접 고용 981명을 포함해 3만5825명에 이른다.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연간 167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지난해 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에 의뢰해 내놓은 용역결과에 따르면, 문화전당 개관 기대효과는 연간방문객 수가

생산 효과 2조7600억원

지역경제·고용 등 큰 도움

장기적 적자구조 면하려면

정부 지속적 예산지원 절실

9월 임시 개관이후 연말까지 83만5000명에 달하고 정식 개관이후인 내년에는 16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콘텐츠 확충 등 과제 많아=문화전당을 채울 문화 콘텐츠 개발이 최우선 과제다. 콘텐츠를 확충하지 못하고 개관한 탓에 사실상 부분 개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을 정도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은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전당을 5년 뒤에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당 운영주체와 관련,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개관 후 장기적인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도 문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용역결과, 문화전당 운영이 본격화되는 개관 이듬해 모두 86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수입이 62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데 있다.

출발부터 무거운 빙더미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



문화전당 개관을 하루 앞둔 3일 전당 야외 잔디광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 문화전당 개방 축제'에서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 취약한 수익 구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앞세워야 하는 문화전당의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문화전당은 광주의 역사성을 밑바

탕에 깔고 항상 밖을 향해야 한다"며 "전당의 에너지가 도시 전체로 확산돼 광주가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면 결국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시민과 문화전당 비전 공유하는 계기

## 문화콘텐츠 창작·제작 역할 힘쓸 것”



◀옛 도청 별관 점거

문화전당 착공식▶



## 도청 별관 이전 갈등 부터 특별법 개정 논란까지

### 우여곡절 1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그랜드 플랜 가운데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아시아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대되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은 개관까지 숏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02년 12월14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여왕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04년 3월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차례로 발족하고 같은 해 9월에는 건립 부지를 광주 동구 옛 전남도

청 일원으로 확정했다. '문화수도 원년 선포식'도 열렸다. 이듬해 12월에는 국제 건축설계 경계에서 재미 건축가 유구승씨의 '빛의 숲'이 당선작으로 선정되고 착공식도 열렸다. 그러나 이 설계안은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지 못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웅장한 외관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랜드마크'를 바랐던 지역사회에서는 개방형 지하광장 형태의 설계에 불만을 표출했다.

2008년 6월 기공식과 함께 문화도시 광주의 비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5·18 단체 등을 중심으로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해 12월 공사가 중단됐다가 두

달여만에 재개됐다. '별관 부분 보존' 합의로 결론이 난 뒤에도 이어진 갈등은 2010년 12월에야 별관 부분 보존 방식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봉합됐다.

법안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률안(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013년 마련한 것은 정부와 지역 사회간 갈등을 촉발했다.

결국, 지난 3월 박해자 의원이 문화전당의 운영주체 등을 규정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대립으로 진통 끝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문화전당 건립 일지

▲ 2002.12.14=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 선거공약 발표

▲ 2004.3.11=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발족

▲ 2004.9.9=건립예정지 옛 전남도청 일원으로 확정

▲ 2005.12.7=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 2008.12.10=별관 보존 논란으로 공사 일시 정지

▲ 2010.12.23=도청 별관 부분 보존 방식 최종안 확정 발표.

▲ 2014.10=보존건물 제외하고 준공

▲ 2014.12=운영주체 등 규정한 아특법 개정안 국회 교육문화관광위 법안 소위 통과

▲ 2015.3.3=아특법 개정안 여야 대립 진통 끝에 국회 통과

▲ 2015.9.4=개관

###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3일 "시민들에게 광주의 아이콘이자 문화융성의 상징인 문화전당의 비전을 비로소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화전당 개관의 의의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문화전당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한다는 의의가 있다. 전시공연물이나 운영시스템과 같은 콘텐츠 구축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전당과 신설될 아시아문화원의 업무와 역할은?

▲향후 정부조직인 문화전당과 조직이 합쳐져도 중복된 기능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 문화전당은 문화전당의 운영방안, 정책, 대안 모색 등을 맡을 것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추진하는 일은 아시아문화원의 임무다. 문화전당은 감독만하는 기관이 되지 않고 아시아문화원과 함께 일하는 조직이 되



도록 할 것이다.

-개관 이후 문화전당의 운영방향을 말해 달라

▲무엇보다 문화콘텐츠를 창작하고 제작

하는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는 물론 아시아인들을 불러 모으는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구축하는 현안에도 총력을 쏟을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콘텐츠가 채워지면 문화전당을 마케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평화교류원 콘텐츠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평화교류원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완벽한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민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백원광주안과**의원

# 눈매교정술

줄린 눈, 짝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시간: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백원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 아이소망

##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